

지역 소식통

고창군, 운곡습지

'여행가는 달' 상품 인기

전북 고창군이 전라북도·한국관광공사와 함께한 기획 여행상품 '2022 여행가는 달'의 반응이 뜨겁다.

고창군은 '2022 여행가는 달'의 메인 주제를 운곡 탐사로 습지 친환경 생태 여행으로 정하고 운곡습지의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태관련콘텐츠를 선보였다. 이에 적극 각지에서 참가자 가물리고 있다.

특히 운곡습지의 저녁을 수놓는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 여행' 상품은 빠르게 매진되며 운곡습지 반딧불이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제1회 오베이골 반딧불이 여행'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오베이골 옛 사진 전시, 반딧불이 관찰전시, 자연물 공예체험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힐링과 치유를 선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교육지원청, 전북형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은숙)은 2022학년도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부모 연수를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전북형 자유학기제에 관한 정책 이해 및 미래교육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 연수 1부에서는 커피 인문학 강사와 함께하는 진로활동 체험과 2부로 관내 중학교의 실제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 나눔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3부를 통해 정경미 작가의 생각하는 부모가 스스로 하는 아이를 만든다는 주제로 미래교육의 핵심인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 무엇이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형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들이 학생의 자아를 탐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나서

정읍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단속 강화

정읍시가 여름철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무단폐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공단지·공장·밀집 지역과 하수·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 돈나 등 종점 관리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업체다.

시는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또

는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주요 하천 지역의 수질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오염원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시기에 이뤄지는 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농공·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번호 128)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감시활동에 앞서 사전 예방조치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 흥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으로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대표 물놀이 시설인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오는 9일 개장한다.

'칠보물테마유원지 9일 개장'

정읍시, 바디슬라이드·워터터널 등 각종 놀이시설 갖춰

정읍시 대표 물놀이 시설인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오는 9일 개장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년간 운영이 중단됐던 물놀이장은 올해 수영장 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고, 유원지 내부에 백일홍과 메리골드 식재로 물거리를 마련하는 등 이용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칠보물테마유원지는 칠보면 무성리 부지에 2층 규모로 물테마 전시관을 비롯해 물놀이장과 비단봉수, 인공폭포, 생태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호수인 옥정호 물을 이용, 깨끗한 수질로 유명해 정읍시민뿐 아니라 전주와 광주 등지에서 매년 3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물놀이장에는 2천30㎡ 면적의 어린이풀장과 유아풀장이 들어서 있다. 또 바디슬라이드와 워터터널, 워터스프레

이 등 각종 놀이시설과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시는 안전을 고려해 수상 안전요원과 응급처치사를 상시 배치하고 물놀이 시간 50분 후에는 휴식 시간 10분을 운영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주말에 조기 개장 후 이달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본격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용요금은 어린이 4,000원, 청소년 5,000원, 성인 6,000원이다. 정읍시민은 한 명당 2,000원 할인되며, 20명 이상 단체는 2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단체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와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전반기 원구성·개원식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1일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실현을 목표로 제9대 의회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을 개최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개원식 전 제3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정에 김광수 의원, 부의장으로 이현기 의원을 선출했다. 또, 의회운영위원장에 김두례 의원, 차지행정위원장에 김원진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박태수 의원을 선출해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진행된 개원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30여 명의 내외빈



이 참석해 제9대 부안군의회의 출발을 축하하였다.

한편 김광수 의장은 개원사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